

제11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10. 5. [월] 09:30 ~ 13:00
장 소	현대해상빌딩 8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10명 (재적인원 11명 중 10명 참석)
주요내용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일부 조정 ○ 시나리오워크숍 일정 재확정 ○ 시나리오워크숍 주요 일정별 진행 프로그램 논의 ○ 시나리오워크숍 자료집(안) 검토
회의결과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일부 조정 - 불참자 발생에 따른 대체 인원 재선정(2명) ○ 시나리오워크숍 일정 재확정(3일간, 1회/1일) - 일정 : 10월 17일(토), 24일(토), 11월 7일(토) ○ [주]자광의 제안내용 설명 관련 결정 - 발표시기, 발표시간, 발표내용 등 ※ 제안 설명 후 (주)자광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자문단 보고 ○ 차기 회의 일정 - 2020. 10. 12.[월] 09:30 ~

제11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안녕하세요.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재적인원 11명 중 현재 10명이 참석하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기에 제11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 상황 보고, 시나리오워크숍 관련 결정, 위원별 다양한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시나리오 의제 방향에 대한 세부 범위 확정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제11차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 오늘도 이렇게 논의해야 할 상황 이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 듣고, 우리 오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황 보고

전주시 관계자	-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민 의견 수렴을 본 결과 지금 29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이 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릴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 시민참여자 명단 중에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 그 부분은 중요한 안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워크숍 관련한 전반적인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참여자 명단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명단을 작성했는데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했더니 그때는 참여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단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시나리오 워크숍 명단 및 일정 확정

전주시 관계자	- 지금 도시 분야 중에서 ○○○ ○○님이 참여가 어려우십니다. - 첫날 외에는 나머지 일정이 최소 한두 달 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불가피 불참을 통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한 분야는 부동산 주택 분야에 ○○○ ○○님은 주말마다 다 수업이 잡혀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

위원장	- 저기 위에 도시계획 분야는 제가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 ○○○ ○○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렵다고 하네요. - 또 지난번 명단에 있었던 ○○○○○의 ○○님은 처음에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매우 파악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 또 한 분은 ○○○ ○○님이신데 또 안 된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 교수님이 ○○○○ ○○○○○○이기도 하고, 상당히 이 분야의 토지이용 쪽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 ○○님을 추천을 했고, 시에서 참석 의사를 물어봤더니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오늘 제가 추천했습니다. - 그리고 이 부동산 주택 분야는 아마 시에서 알아보는데 이 ○○○ 교수님은 저기 ○○○○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 경관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 ○○○○○○ ○○님 전화해볼까요? 다른 분으로?
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하죠. 그때 얘기했던 게 부동산 쪽을 전문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부동산 쪽에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명단으로 돌아가 주시죠
○○○ 위원	- 이미 그쪽하고 이야기 됐으면 또 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장	- ○○○ ○○님과 연락이 됐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연락은 되었으나 아직 확정 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 그럼 명단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통화하고 계시니까는. - 네, 저기 위에 도시계획 분야의 ○○○ ○○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들 여쭙보기도 어려워서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급하게 추천드립니다. ○○○ ○○님으로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	-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니까 좀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요. 전문가들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일정이 17일, 24일, 31일로 정했는데 31일에 사회자 및 일부 참여자가 참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7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결정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 일단 다들 참여 가능하더니까. 한 주 마지막 날 31일만 11월 7일로 연기를 해서 10월 17일, 10월 24일, 11월 7일 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24일, 11월 7일

	- 저희들도 아마 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그런 일정입니다. - 그다음에 장소 이야기를 해주시죠.
용역 수행기관	- 예. 전통문화회관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차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도시혁신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 예약은 온라인 예약은 확인된 상태인데 주말에 대관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10월 17일, 24일, 11월 7일은 온라인 예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도시혁신센터는 우리 전주시에서의 관할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 관계자	- 시 산하기관이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가능하겠죠?
전주시 관계자	- 주말이다 보니 그 부분이 관건이 있습니다. - 주말은 원래 쉬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한번 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오늘 확정됩니까?
전주시 관계자	- 예
위원장	- 만약에 주말에 못한다고 저쪽에서 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지금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세미나 공간들은 지금 저희도 그 두 군데를 보고 나머지 분들은 후 순위로 이제 어디 교회 건물 쪽이나 이제 이런 중부 교회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위원	- 도시혁신센터 가장 큰 세미나실은 몇 석이에요?
용역 수행기관	- 이제 150석 이상인데 현재는 그 반밖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절반 수용 인원만 가능하다 해서 제일 큰 데로 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회의 공간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2개와 가장 큰 다울마당, 근데 가장 큰 공간이 150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반절만 수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워크숍 참여 인원은 약 50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다른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큰 강당 정도
전주시 관계자	-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터미널 앞에 있는 곳이요?
○○○ 위원	- 주차도 용이하고, 혹시나 안내를 해드려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 ○○○위원님. 아까 터미널 앞에 있는. 그곳하고 저곳하고 비교하면, 이 공간이 더 낫긴 낫죠? 어떻습니까? 감이 없어서.

○○○ 위원	- 폐쇄 시설인데 거기는 강당이 크게 있어요. 하여튼 저는 ○○○ 위원님 의견을 해서 저기 저쪽을 하되 대안도 좀 있어야 할지 모르니까 한번 확정을 오늘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 하여튼 저 장소는 날씨가 중요하니까요. 장소를 잘 섭외하고 코로나 사태 이런 걸 검토해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까지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혹시 ○○○ 위원님?
○○○ 위원	- 보니까 전주대가 대학원 수업을 토요일날 진행을 한대요. 저희 토요일 일정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 하루 종일 하는데. 5시 그 정도까지 하죠.
○○○ 위원	- 지금 그게 걸리네요. 비대면을 이번 주까지 하는데 다음주부터는 대면수업이래요. - 일단 제가 일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 시나리오 워크숍 자료집 구성 논의	
위원장	- 그럼 일단 먼저 자료집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 위원님도 자료집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날 여기에 와서 전주시 관계자하고 자료집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료집 자체에 대해서 전주시나 우리 용역팀에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오늘 배포해 드린 게 일단 정리된 자료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 이게 이제 오늘 최종안이죠? 다만, 여기에 맨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 FAQ에 대한 것은 제가 안 넣는 것이 좋겠다. - 그래서 자료집. 우리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한방직 관련 FAQ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넣지 않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왜냐 이게 자칫 지난번처럼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 질의응답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일단 갖고 있겠습니다. -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 정도의 모범답안을 만들었다 하는 정도로 가지고 계시고 이 FAQ에 대해서는 워크숍의 참여자에게는 드리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	-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아직 올라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 FAQ가요?
전주시 관계자	- 아니요.
○○○ 위원	-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Q&A하고 이것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올라가 있지 않나요. 홈페이지에?

○○○ 위원	- 지금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된건가요?
위원장	- 아니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견 주십사 했는데. 지금 주셔도 됩니다.
○○○ 위원	- 자광의 사업계획, 토지 이용 계획, 이 문자적인 측면 말고 자광의 재무적인 측면도 사업계획 그런 것들을 여기같이 해주면, 어떨까.
위원장	- 지난번에 저희가 자광에다가 그 발표할 내용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재무에 대한 것을 넣어라. 그건 그대로 받아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저희가 몇 개 15분 발표할 내용 중에 토지용, 건축계획 몇 가지 정리를 해주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무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 관계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15분 발표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30쪽을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나 발표는 15분만 하겠다' 그래서 15분을 하되 이 피피티 전체 분량도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보통 내가 볼 때는 15분 발표를 한다 그러면 피피티 한두 장 정도 20장에서 한 30쪽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만 정해주고 그 분량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 위원	- 분량까지 제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 제한하는 내용은 분량 정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40쪽, 50쪽 담아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 위원	- 첫 번째, 발표자가 여기에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별도의 발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 저는 여기다가 발표 자료를 여기다가 담으면 어떠한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 내용은 빠진 내용, 자광의 사업계획, 이게 전부 다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게 다 돼 있는겁니까? -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이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넣을겁니까. 아니면 일단 뺀 겁니까?
전주시 관계자	- 자료집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만 내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별도로 와서 배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놓고. 발표 자료만. 그러면 그날 배포하는 자료에서 우리가 얘기한 지난번에 얘기한 자료들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지금 두 가지 안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 얘기했던 자광에다가 이러한 내용으로 피피티를 만들어서 15분 내에 발표하라 요청을 할 건데 그 자료를 이대로 여기에다가 담느냐, 아니면 이걸 이대로 그냥 놔놓고 자광에서 가져오는 피피티 자료를 그냥 배포하지 않고 발표만 하게 하느냐. 어떻습니까?
○○○ 위원	- 분리를 좀 해야 되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피티가 30장 이렇게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제안서는 제안서대로 하고 발표는 발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이러면 어떻습니까. ○○○ 위원님 이걸 이대로 그냥 가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재무제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하되 배포하지는 않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15분 내에 발표하라. - 그리고 그 내용 자료를 뿌리지는 말아라.
○○○ 위원	- 자료집은 이제 공시의 대상이. 이제 어떤 사업이 빠져 있는지 그것을 감안하는데. 자광이라는 회사가 현재 어떤 토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곳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위원장	- 그런데 이 자광의 사업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거기에는 재무제표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자광의 사업 계획에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 위원	- 그런데 재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은 시민공론화 자료집이라고 하는 건 여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객관화되고,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단에게 제공할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피피티 자료가 여기 끼어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걸 발표자가 발표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광 사업 제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정보와 사람들이 그냥 저런 이야기하고 문서로 내가 꼭 기억하고, 또는 더 들여다보고 싶은 자료의 기본적인 사항에 빠진 것 중에 재무제표, 기업 회계 감사 보고서 정도. 거기에 보면 파일이라든지 우리가 궁금해 했던 롯데 건설과의 관계 등등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지만,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설명이 좀 복잡해져요. - 그래서 재무보고서 저번에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그 정도를 여기다가 그냥 상황만 넣으면 자광 사업계획서와 일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님?
○○○ 위원	- 일단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소요비용 하구요. 비용의 재원조달하고는 여기다 담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 그러니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은 얼마 듭니다, 다 어디서 충당한 거다, 그 정도로 나와야 해요. 그 안에 재무제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 - 소요 비용 같은게 있어야 얼마 들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정도는 있어야 계획 비용 조달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 재원조달 계획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그 속에 재무제표도 들어가야죠.
○○○ 위원	-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PF 받아야죠. - 그런데 그 규모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발표자가 발표 내용 안에 저희가 정말 넣으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소요 비용과 재원조달 계획을 가지고 와요.
○○○ 위원	-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자료집에 그것을 넣을 것인가. 저는 자료집에는 재무보고서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발표자한테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니 자금조달 방법이라든지 추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피티에 포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 지난번에 그건 들어가 있어요.
○○○ 위원	- 위원장님, 자광에서 어떤 용도까지 구체적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18페이지에 토지 이용 계획이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으로 얼마를 하겠다, 몇 세대를 하겠다 본인이 예상하는 바가 뭔가가 나왔다면 그 안에 소요비용이 한 두 줄 정도 추가될 수는 없나요?
위원장	-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소요 재원조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여기에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소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정도만 재무제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 더.
위원장	- 지금 ○○○ 위원님은 재원조달 계획은 발표할 때 발표토록 하고 여기에는 재무제표만 넣자. 이 자료집에는 우리 ○○○ 위원님은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것도 넣어서, 그러면 재무제표도 같이 들어가지 않느냐. 관련 들어가는 곳은 들어갈 겁니다. 어느 내용까지 자료집에 포함시킬 거냐에 약간의 의견이 있으신 거죠
○○○ 위원	- 개인적으로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재원조달 계획이 중요하죠.

○○○ 위원	- 재무제표라는 것은 현재 이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은 하는데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충당하고. -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본질이 자금 계획이에요. 하나의 어떤 식으로 구체화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 이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야 해요. 이 그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적어도 이것은 보는 사람이 누구까지 보느냐의 문제인데.
위원장	- 전주시에 여쭙보고 싶은 게, 자료집에 이 재원조달 계획을 넣으면 그 내용은 가지고 있죠. 그 내용은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전주시 관계자	- 지금 그때도 피피티로 제공했던, 자광 측에서 제공했던 자료를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라는 것은 딱히 명시가 된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총 사업비 투입 비용이 얼마다, 그 부분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받아야죠.
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고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발표할 때 이미,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발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있는 것만 넣고 재원조달,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 위원님 의견대로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주시 관계자	- 그건 가능합니다.
○○○ 위원	- 저도 재무제표만 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회사 상태,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팩트만 전달해주면 될 것 같고요. - 자금조달 계획은 그냥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하겠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본인들이 발표하는 사항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팩트를 가지고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한 사람들에게 판단과 논쟁 거리를 주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탁이라는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아마 위원들까지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를 자료집에 넣는 그 정도로.
위원장	- 그런데 다만, ○○○ 위원님. 이 재무제표는 자광 안은 아니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넣는데, 자광의 제안 내용에 집어넣을 것인지 사업 계획 속에, 아니면 별도로 재무제표를 넣을 것인지

○○○ 위원	- 그러니깐 여기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어떤 타이틀이 되냐면 현재 자광의 재무상태, 토지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넣고. -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 더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사실 순차적인 연도에 따라서 어떤 스케줄을 해서 딱 붙이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회사가 이런 일을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겠다.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제가 논의할 내용이 많아서 이 재무제표. -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맨 앞에 자광의 2019년 재무제표 해서 우리 ○○○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넣고. 제가 볼 때는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좀 발표할 때 그때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 지금 왜냐하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야되고. 지금 나와 있는게.
전주시 관계자	- 재원조달 계획은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냥 발표 피피티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 재원 조달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 정도만, 그건 이미 공개되고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객관성이 있어서 재무제표 정도만 자료집에 넣어두고. -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게. 지금 이제 뒤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숙의하는 토론회인데요. 워크숍인데.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마 거기에서 피피티를 발표할 게 굉장히 많아요. - 자광 사업계획도 들어가고 기술단의 검토의견도 들어가고, 공론화가 뭐하는 건지 설명도 들어가고, 시나리오 워크숍은 뭐고, 시나리오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숙의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실은 워크숍에 필요한 자료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피티를 발표하는 것을 그냥 발표자가 피피티만 띄워서 설명을 끝낼 건지 아니면 그거를 피피티를 출력해서 출력물을 참여자에게 제공할 건지. - 일반적으로 자료집은 자료집으로 나가고요. 피피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출력을 해서 참여자한테 제공을 해야 그 사람들이 워크숍 참여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발표자가 딱 발표하고 끝나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보통 어디 토론회를 가도 그런 발표 자료를 대부분 인쇄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시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 저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 자료집에는 별도로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광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자료집에는 넣고, 그렇게 결정토록 하고 그다음에 자광에게 발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15분 자광이 발표하도록 하고, 그 발표의 내용은 프린트를 해서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단들에게 드린다. 이렇게 결정토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 모두	- 좋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 위원님 15분 발표하는데 분량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분량은 마음껏 해오라고 하구요.
○○○ 위원	- 저희가 자광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그게 위원회에서 우려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15분 정도의 발표를 할 수 있는 분량 20 페이지 내외 이렇게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린터로 통해서 나눠주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자료로 만들어오지 않을까요.
위원장	- 저도 그렇게 우려가 됐어요.
○○○ 위원	- 그러면 프린트를 해서 나눠준다는 전제는 알려주지 말고, 저희가 앞에서 워크숍 프로그램 내에 들어있는 발표시간이 있잖아요. 발표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현장에서 배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현장에서 배포하는 것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 위원님 그때는 뭐 저기 분량을 만들어왔는데, 지금 ○○○ 위원님이 20매 정도 15분 매수를 좀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위원	- 네, 뭐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50페이지를 넘는다던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	- 그러면 20매. 그렇게 20매 15분 발표 이렇게 정해서 하고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우리 시나리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자료집 확정됐고 이 자료집에는 재무제표가 들어갑니다. - 그다음에 참, 아까 명단 중에 시민 참여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 위원	- 교수님은 17일만 가능하데요.
위원장	- 그 교수님은 도시계획 부동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 명단으로 그냥 가죠. 그러면 아까 ○○○ 교수님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 네
위원장	- 시민 쪽에 참여자가 있죠. 어떻게 돼 있죠?

용역 수행기관	- 일단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휴일이 끼다 보니까 조금 더 일정이 늘어졌는데, 모레 정도까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용역팀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는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사회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합니까? - 사회자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용역 수행기관	- 경력보시면 신고리 원자력 발전에도 참여하셨고,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등 것들을 하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위원장	- 김상규님께서 사회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모더레이터도 다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용역 수행기관	- 계획안에 보시면 저희가 나눠드린 계획안에 보시면 나와 있고 총 6분의 모더레이터가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규칙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집은 확정하고 가는 겁니까?
위원장	- 예. 저는 확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 위원	- 말씀하신 것 중에 부록에서 4번만 빠지는 겁니까?
위원장	- 예. FAQ만 빠지는 겁니다.
○○○ 위원	- 거기에 동의하고요. 혹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집 40쪽이요. 지금 의제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거든요. - 사실은 이게 좀 더 풍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참여단의 눈높이로 볼 때, QnA 등 어떤 방식이든 서술형이든 여러 가지 자료가 겹칩니다만은 내용이 이걸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용도 변경 가능성이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토지계획 이야기는, 이렇게 도시계획상의 인허가 중심으로 논의가 가버리는 듯한 느낌이어서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시나리오 작성에 하나의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한 블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해야 할 논의 의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장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논의 좀 하도록 하시죠. - 이 자료집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FAQ만 부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론화 의제는 오늘 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왜 이걸 빼는 건가요?
○○○ 위원	- 내용상 오해를 살 소지가 더 크다. - 두 번째는 어떤 FAQ가 나올지를 굉장히 지금 어렵고 여기에 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당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좀 뺏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 위원	- FAQ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론화위원회 공식입장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FAQ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잖아요? 공론화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는 본문에 넣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참여자들이 궁금한 내용은 여기에 다 있거든요
위원장	- 이걸 모범 답안으로 해서 위원들이 답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고 자료집에는 넣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 위원	- 하나 궁금한 것은 종합경기장 진행 상황이 별도의 장으로 들어갈 만큼 관련성이 높은 건지.
위원장	- 43페이지에 종합경기장 진행 상황이 장으로 들어갈 만큼 중요하냐? 저도 장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위원	- 이 문제를 지난번에 언급을 저희가 해서 저도 이게 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	- 부록으로는 어떤가요.
위원장	- 부록으로 넣기에는 또 너무 그렇고. 종합경기장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아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 속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죠. 장으로 들어가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깐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에서 종합경기장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 위원	- 근데 종합경기장 진행 상황을 그쪽 부서, 같은 부서죠? 그런데 그거 제공할 수 있어요?
위원장	- 네,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 상황 정도
○○○ 위원	- 이것만큼이나 머리 아픈 문제인데 너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전주시 관계자	-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 정도만 저희가 수락을 한 것이거든요.
○○○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어요? - 내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 위원	- 같은 사안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쨌든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들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애써 외면을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의제 논의할 때 이 문제를 좀 다뤄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의제는 어쨌든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원래도 의제들 다루는 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문제는 의제 분야에 하나의 번호로 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장	- 이게 종합경기장이 의제로까지 들어가면 너무 커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의제 얘기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 위원	- 종합경기장은 우선은 참고할 수 있는 부록 정도로 확정된 사실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개하죠.
○○○ 위원	- 지금 진행되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전주시 관계자	- 시민들한테도 홈페이지가 다 있어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런 부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 그런 행정에서. 그런 정도 공개, 저쪽의 추진 상황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그 정도면 뭐.
위원장	- 그러면 부록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단에서 발표할 자료도 15분에 20쪽에 똑같이.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 제가 보면, 여기 FAQ 7번에 현재는 어떤 것들이 입지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럼 똑같이 계획에 따르면 어떤 시설도 입지 가능한가 라는 것까지. 너무 지금 내용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림 한 장 보여주는 것보다 똑같이 계획에 따른 어떤 것 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나.

○○○ 위원	- 저의 생각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자료집에 내용 FAQ 빼고 나면 되게 이해하기도 어렵구요. 서술형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피피티만 보여준 이 상태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 그래서 이건 저의 생각인데 이 FAQ를 다 날리는 것은, 저도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웠거든요. 상당히 중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위원회 입장이나 아니면 시 입장이나 이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 또 FAQ에서는 상당히 내용이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FAQ 중에 객관화할 수 있는 괜찮은 사실이 있는 것들은 안에 본문에 서술형으로 넣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보시기에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찍어주셔야만. 저희는 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은데.
전주시 관계자	- 어차피 이 자료가 공론화 위원회 내용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 위원	-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찍어서 안에 넣을 것을 코멘트를 달아 드릴게요. 이것을 다 날리는 것은 아깝기는 해요. 이거보면 이해는 상당히 쉽게 되는데 읽어보면 너무 약간 중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고민스러워요.
위원장	- 그러면 기본적으로 FAQ에 대한 것은 담지 않는다. 원칙으로 한다. 다만, FAQ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객관화할 수 있는 내용은 공론화 자료집 속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좀 공론화 자료집을 조금 풍성하게 만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도 부록에 관한 의견을 하나 드리면요. 언론 보도에서 특정 언론사 기사가 워낙 너무 많아요. 기사가 11개가 넘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공정한 배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보도자료 내용을 찍 실을까요?
○○○ 위원	-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 위원	-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10년 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고 도시가 팔릴 것이다. 팔렸다. 시민의견 수렴한다. 이런 순서로 왔거든요.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좋은 한데. ○○○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언론사가 너무 많아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 그러면 약간 특정 언론사에 대한 개수는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아까 FAQ 이 문제요. 객관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있어요.
위원장	- 그것은 우리 ○○○ 위원님이 좀 검토해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 이 앞예를 쭉 한번 보고는 이제 이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궁금하니까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FAQ가 없어도 가자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FAQ가 있으면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이 여기 다 있는거죠.
위원장	- 제가 ○○○ 위원님하고 이 FAQ 내용을 보고 그것을 본문에 좀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본문으로 옮길게요.
○○○ 위원	-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일반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비교표 하나 만들어서 용도 어떻게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 아니 일반 상업지역 그게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록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시계획적 건폐율, 용적률, 허용 정도.
○○○ 위원	- 그래서 어떤 시설이 되고 안 되고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용도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추상적인 용어들을 구체화하는 것이거든요?
전주시 관계자	- 지금 말로써 표현은 해놓은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 공업지역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뭐가 다르지 비교를 좀 해도 되겠네요.
○○○ 위원	-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무엇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제가 얘기한 것은 표를 만들어서 일반공업지역, 주거용지, 하나는 상업지역 표를 만들어서 동그라미표시를 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비교하자는 말이지요.
위원장	- 그런데 ○○○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용도는 이러 이러한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게 있고 또 어떤 용도로 가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에서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되는데, 허용용도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가능 불가능한 것만 나열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 위원	- 위원장님. 자료집 배포에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얘기하면 자료집을 발송해서 참여단이 봐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원고 마감에서 인쇄하는 시간과 인쇄 시점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사실은 저번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확정 짓고 다음 주부터 시나리오 참여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설명해드리려고 했었어요.
○○○ 위원	- 다음 주에 그러면 두 번째 인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위원님들이 아까 의견을 주셨지만 그 의견을 행정한테 다 밀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시 언제 검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하기로 한 건 수정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 저기 이 자료집 목차를 한번 봐주시죠. 제1장 공론화의 이해 이것은 ○○○ 위원님 한 번쯤 봐주십시오.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한번 봐주시고요. 제2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님이 한번 좀 들여다봐주십시오. - 자광의 사업계획 부분은 ○○○ 위원님이 한번 들여다봐 주시죠. - 전주시 도시계획의 이해, 이걸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좀 미루겠습니다. - 제5장 종합경기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인지. 그러나 가급적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한다. - 부록에 대한 내용 중에 이것은 넘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이 한번 들여다봐주십시오.
○○○ 위원	- 아까 Q&A를 존치해도 좋겠다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 다만 쟁점이 될 만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의심이 될 만한 사항들을 보면 이거 11번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 이게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재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11번을 좀 수정을 하고 객관화시키고 이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Q&A로 존치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 ○○○ 위원님과 ○○○ 위원님이 이런 것들을 본문에 포함시켜도 될 부분만 좀 정리해주십시오. - 언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1개의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하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인쇄를 해야 하죠. 수요일까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도 FAQ 중에 이것은 도시계획 이해 쪽에 포함시켜야겠다 하는 것은 저도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장님, FAQ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합니까?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예, 그다음에 진행규칙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진행규칙을 만들었다 하는 쪽으로만 좀 읽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주요 일정별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안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용역 수행기관	<시나리오 주요 일정별 진행 프로그램 발표>
○○○ 위원	- 제가 느끼기에 일자별 정리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다가 누가 진행할 건지, 위원회면 그렇게 명확하게 좀 표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지금 저기의 표에 의하면 1차에는 가.까지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성에 1일차, 6. 시나리오 작성에 어디까지가 1일 차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6에 나. 까지?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전체 토의까지 하는 것이니까. 일단 6에 다. 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 6에 다. 까지가 1일 차다. - 잠깐만. 여기에 1회 다.까지. 그러면 2일차에 들어가서 먼저 자광 사업계획 듣고?
용역 수행기관	- 자광 설명과 기술자문단은 1일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다. 까지. 그리고 2차부터 시나리오 작성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일차에는 바까지 합니까. 시나리오 장단점 토의까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세요.
○○○ 위원	- 중요한 건 2일 차가 되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구요. 그 의제별 시나리오 작성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제시한 의제가 5개 잴아요. 근데 이것을 다 담아서 전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것인지, 공론화 의제가 이야기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할지 프로그램도 조금 더 명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재로서는 5개를 다 담아서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의제 자체도 지금 어떻게 가느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조가 나와야 하고, 뒷부분도 효과나 이런 부분도 보강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지금 대략적인 1일차 2일차 3일차를 저렇게 짜 났다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공론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짜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팀에서 나중에 공론화 의제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다시 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같은 공론화에서도 어느 분이 담당해야 될지 또 FAQ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짜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의제 방향 설정	
위원장	-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공론화 의제에 대한 얘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또 오늘 얘기를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그룹이 4개가 짜였습니다. 그러면 4개 그룹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그래서 각 그룹별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라고 할 지 아니면 최대 2개 그러면 총 8개가 됩니다. 8개의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다음 시나리오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얘기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기에 앞서서 상당히 공론화 의제를 할 때 조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 위원님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 위원님하고 제가 교통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발표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통 부분에 대해
○○○ 위원	- 자광에서 발표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올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구요. - 나중에 질문이 있을 거다. 질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 그것으로 저는 위원들이 역할을 하는 정도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저는 기술자문단 발표 내용도 포함해서 발표 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 정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 위원님이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교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교통 측면에 대한 발표>
○○○ 위원	- 현재 교통 수준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E, F 수준이거든요. F가 가장 나쁜 거니까. 지금 현재는 E, F 수준인데, 저게 지어졌을 때 아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들어서면 볼 보듯이 뻔한 생각이고, 지금 거의 다 도로 확장하기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아파트만 지어줘도 대단한 교통 문제가 일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 교통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지난번 우리 ○○○ 위원님이 만들어주신 거 있죠? -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금 세부 범위를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저 위원장님, 아까 자광 피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술자문단 피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인지?
○○○ 위원	- 지금 의제 얘기를 하고 피티를 기술자문단에게 부탁을 좀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그리고 자광 주변에 대한. 그때 우리 저희 다 발표했던 내용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자광의 개발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전문가에 대한 차원에서 교통에 대한 문제까지는 발표 내용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술자문단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필수 요건들을 제시할건지?
위원장	- 제시해야 합니다. 의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죠. 각 부분별로. 그 대신 저것은 하나의 예시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그것까지는 얘기된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기본적으로 고민이 됐던 게, 기존에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검토, 상권 영향이라는 게 이분들이 조건이나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실제 논의는 1번, 2번 쪽에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고요. - 두 번째 공간구성을 넣어보는 것은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공간구성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논의될 것들은 비율 정도를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비율 접근이 막상 머릿속에 저렇게 안 떠오릅니다.
위원장	- 그때 ○○○ 위원님께서서는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 위원님은 전문적으로 넘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맨 앞에 바람직한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 위원	- 기존까지는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다음 두 번째가 저기에는 공간구성으로 가는 접근이고 기존의 논의 되었던 것들은 용도의 변경 여부와 범위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어쨌든 3, 4, 5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도로교통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이런 정도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지금 두 번째에 대한 여기는 공간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용 방향이죠. 그냥 용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론화 의제로 줄 것인지 한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근데 저 조건이 취향이 갈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유치하게 공간구성이 마치 레고 쌓듯이 잘못하다 보면 초등학생 판 채우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고, 용도로 가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건지 애매해질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가 좀 애매합니다.
위원장	-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얘기하면 공간구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할 기능까지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 용도 문제는 최종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계획상에 어떤 인허가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역적으로 뭐, 주거용지 안에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구분이 되면, 결론에 가서 나중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용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용도변경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 경제 활성화하고 섞을 수도 있잖아요. 자연도시를 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전문가들이 보고, 그러면 이 정도 포함되겠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위원	- 그게 마지막에 가서 질의하고 대략적인 비율 정도 나올지 모르는데, 초기에 각각의 시나리오에 그 토지 용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앞서 ○○○ 위원님이 이야기한 저런 식으로 미래상이 만들어진다면, 저럴 때 담아야 할 주기능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는 있겠죠. 저렇게 담아야 할 주기능 혹은 보조기능. 이렇게 까지 이야기는 될 수 있을겁니다.
○○○ 위원	- 의제 1번은 뭐 우리가 다른 큰 의견이 없는 것 같고요. - 2,3,4가 있는데 2,3,4를 그냥 한 번씩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시나리오상 상관이 없기는 한 건데, 어쨌든 저희가 저기에 대해서 방향성의 핵심을 이제는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그리고 3번, 4번은 좀 뻘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개발이 된다면 그게 그 안에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든지 간에 보완을 해야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일 텐데. 그리고 그 공간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방향성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 2번에 조금 중점을 뒀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안 자체는 공간 구성이 약간 콘텐츠 베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콘텐츠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향후의 개발 방향을 얘기를 하자면 시나리오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전문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상에서 그게 지금 현재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냐 아니면 녹지시설이냐 아니면 뭐 그대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도시 계획이나 이런 변경 절차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거를 용도 변경을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 공간 구성으로 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자칫하면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되게 유치한 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과 유치의 중간 타협점으로서 그냥 여기에 들어 오는 공간이 어떤 비율이 더 높았으면 좋겠느냐 공간구성 자체에서 포션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 그래서 어쨌 보면 주거시설이 비율이 높냐 낮냐. 보통 저희가 시나리오를 정해나가는 트리를 만들 때요. 좌극점과 우극점을 놓고서 도시의 주거 비율이 높은게 좋냐 낮은게 좋냐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비율이 높은 게 낮냐. -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연결해서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들어올게, 공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녹지시설 이렇게 간다하면, 16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트리로 만들면. - 또 한 가지는 이 4개를 조합을 하면 여기서는 하나의 시설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주거시설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두개가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높아지면 주거시설이 높아야 해요. 이거는 결정 다양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 그러면 오히려 이 트리구조로 매트릭스를 짜면 16개 안에서 각각의 비율의 높낮이를 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이 높되 상업시설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거시설 중에서도 그 세부 종이 있잖아요. 뭐 준주거시설 이런 식으로. -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전문가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단지 그 좌극점 우극점을 놓고서 그 시나리오가 어떤 공간이 높게 구성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 위원	- 예를 들어서 상업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전라북도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상업기능 이럴 수도 있고, 전라북도 전주시의 중심이 되는 기능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같은 상업기능이지만 굉장히 다르게 제시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 위원	- 한정된 3일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냥 주거시설, 상업시설 어느 정도 그 선까지는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업시설 이냐 이렇게 다 정하려면 3일 가지는 안 되거든요. -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시나리오워크숍 하는 것을 3일로 정한거구요. 3일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주거시설이든 상업시설이든 어떤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에서 진짜 개발이익환수는 꼭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환수할래요, 아니면 비율을 어떻게 환수할래, 이게 진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공론화 전체 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 워크숍에만 계속 중점만 돼서 여기서 어떻게 의제를 다룰래 이것만 논의되는데 이후에 어차피 저희가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큰 틀을 그려놨잖아요. - 시나리오워크숍 하고 거기서 큰 방향성이 나와주면 그거를 공론조사에서 세세하게 다뤄서 전주시민들한테 묻겠다고 한 거잖아요. -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계성 있게 가져갈 것인가와 거기서 진짜 크리티컬하게 정해야 할 부분들은 공론조사에서도 시민들한테 여쭙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너무 많은 것을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진짜 미세하게 다뤄야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이게 정말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에서 어떤 방향성만 나와주면 대략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거.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짜 영향력이 있고, 이것은 정말 불확실성이 뭐가 있는 건지를 찾아서 시나리오 워크숍 의제로 담아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요.

○○○ 위원

- 듣다 보니깐 더 어려워지는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림은 아까 말한 대로 어디다 뭘 배치를 하고 뭘 쓰고, 아까 말한 주거든 상업이든 녹지든 공공용지든 이걸 뭔가를 그려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좀 쓰는 것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를 들면 종합의견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각 주제별로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놓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토지이용 계획, 구상, 그다음 용도 지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쓰면 좋겠다는 거고요.
-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뭔가 서로 만들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예를 들면 녹지가 필요한데 아까 여기 쪽 나오는 거 보면 녹지 비율이 얼마 정도 해야 한다, 녹색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 녹지는 있어야 한다, 녹지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 예를 들면 이것을 선호도 별로 하면 우리 시나리오에 있는 사람들의 크게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녹지 비율이 높았다, 아니면 여기가 일정 부분 주거용지로 되어있는데 주거용지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 주거에 최적화된 조건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하나를 놓고 보면 그게 나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주거가 우선이 되는 것과 주거에 따라 녹지가 가야 하는 주거민들을 위한 녹지의 기능이 더 커지는 거겠죠.
- 아니면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준주거시설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으면 그분들은 서부신시가지 전체로 봤을 때, 나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랜드마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나는 여기다 이것을 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뭔가 결정해야 하고 그림을 그려야하고 쓰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는 어떤가 이 부분을 한번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 이게 결론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의 선호도, 아까 말한 대로 토지이용 구상에 대한 선호도, 용도에 대한 선호도는 이런 순으로 나왔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그림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정말 어렵겠구나. 어떤 건 굉장히 디테일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호도 하고 이렇게 넣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것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구성을 할 때, 의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이번에 중점이 돼서 그 용도의 주거냐, 녹지냐 아니면 상업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좌우극점으로 하면 말씀하신 선호도를 측정하는 비법이 있어요. - 그냥 이게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AHP나 아니면 크로스 매트릭스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점수를 계량화해서 이 중에 전체 참여자들이 가장 영향도가 있다고 나온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이 중에 어떤 비율 그러면 그중에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선호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기법으로 하는 것들은 아마 시나리오워크숍 진행하는 것들은 진행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중요한 것은 그 의제를 사람들하고 그림을 그릴 때, 저거를 그냥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진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주실지 아니면 여기에다 뭐를 플러스 더 해서 갈 건지 그것을 여기에서만 결정해 주시면 알아서 선호도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AHP 기법을 쓰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AHP 기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야 그걸 선호도를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2단계까지 가서 2단계에서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2단계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AHP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그게 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1단계, 2단계 용도에 대한 얘기가 온 다음에 AHP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다만, 우리가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는 분들이 제가 참여한 경험에 의하면, 그냥 상업지역 이렇게 써내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하다 보면 상업지역인데, 굉장히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 예를 들면 주거 용도라고 해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저층에 이런 주거용도라든지 이렇게 소위 설명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히 얘기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우리가 주거, 상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 느낌을 워딩으로 써내라고 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이렇게 나와주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방향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팀에서 우리는 주거시설도 어느 정도 적정이 들어가고 상업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방향성이 이미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 그것을 이제 선호도 평가를 하고 AHP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최적의 안이, 예를 들어서 주거비율이 높고 상업 시설이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작업이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인데 그 방향성을 담아서 주거비율은 높은데 거기에서 이제 주거비율을 높이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해서 용적률을 높이던가, 그런 거는 시나리오에서 담길 수 있죠. - 그런데 앞에서부터 큰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시나리오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율 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모순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단 방향성을 잡아주고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정확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그래도 좀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일단 전체 1, 2, 3, 4. 우리 맨 앞에 미래상 그다음 어떤 진행이 되었던, 용도가 되었던, 공간구성이 되었던. - 그다음에 그 뒤에 개발이익 이런 세부사항들이 나오는데, 주 초점을 미래상과 공간구성이라고 하죠, 용도. 거기에 주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러나 뒤에 저 문제로 결코 그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3, 4번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버려버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 1, 2 중간 부분까지를 조 추천으로 가되, 우리가 이야기한 교통의 문제, 계획이득 환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의견을 조금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위원	- 일단은 과정에 있어서요, 적어도 3번하고 4번하고는 바꾸는 게 기술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산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은 뒤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 예를 들어 1차 팀별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도시기반시설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최종 시나리오가 모아졌을 때 그 좁혀진 시나리오 안에서 적용하는데 다만 예를 들면 도로 및 교통에서 중요하게 그 시나리오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모든 초기부터 시나리오의 모든 부대 조건들이 다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런 거고요. - 그다음에 제가 왜 3번하고 4번하고 바꾸자고 하는 건지. 이게 용도라고 하는 건 대한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 예를 들면 아파트 여기 3천 세대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전주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관성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발생하는 거죠. - 그다음 교통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 광역

	교통망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적어도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이미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도시기본계획에도 주거용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부신시가지와 전주시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용도와 이게 정확히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계획 아닙니까. - 그렇듯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전주 시내 전체의 상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이 먼저 가서 고려해야 할 게 들어간 시나리오가 나와야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디테일한 조건들을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 3, 4번 순서 바꾸는 것은 생각은 안 해봤네요. 저는 이제 1, 2번 비전과 공간구성, 나와 있는 대로 비전과 공간구성에 주 초점을 맞추고 저 후반에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가볍게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볍게 물어보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진짜 여쭙보는 겁니다
○○○ 위원	- 저는 1번과 2번, 4번이 한 세트로 봅니다. -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풍요로운 공간 그러면 지역 상권 관계 나오잖아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산업용지를 할 것인가, 어떤 사이즈를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그래서 공간구성이라고 하는 자체도 도시 전체의 영향과 함께, 쪽 일관되게 설명하고 이게 분산된 게 아니라 적어도 3개가 하나로 돼서, 그것이 이해되고 난 다음이 AHP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앞 조건이 아닌가. 무조건 백지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죠.
○○○ 위원	- 사실은 연관 검토사항은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전주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사전에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오히려 비전하고 붙는 게 안에 들어가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다 끝나고 나서 따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에요.
○○○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 위원	- 그런데 이제 토론할 때 지금 이게 표로 나온 건, 그걸 같이 고려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정리할 때 붙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 명확하게 안 봐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의제로 얘기했던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을 시나리오 워크숍의 의제로 삼느냐. 또 계획이득에 대한, 얼마까지 계획이득을 하느냐. 그걸 의제로 삼느냐. - 그것을 의제까지 삼기에는 3일 차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 우리가 의제로 삼고자 했던 교통을 중심으로한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과 계획이득에 대한 내용을 의견을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여쭙보고 싶은 겁니다.

○○○ 위원	- 그래서 저희가 1, 2번을 중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면 나중에 장단점 평가를 하라는 이유 중에 실현 가능성이 모자란 이유가, 그거와 연관된 영향력, 연관성이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랄지, 기업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사항으로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1차 시나리오를 정하고 보완 사업으로 거기서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짜여 있잖아요. - 그래서 저는 앞단에서는 그냥 1번에 중점을 뒀서 그냥 큰 윤곽의 방향성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쨌든 3번, 4번도 있고 5번도 있잖아요. 개발 이익까지. - 그런 부분들은 실은 앞의 방향성이 나오면 다 연관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서, 대책을 이야기할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한 다음에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 거죠.
○○○ 위원	- 두 번째를 조금만 구체화시켜 보면은, AHP를 먼저 하고, 주거, 상업, 녹지 쪽 나오면 현재는 그 AHP를 전체에 대해서 그룹핑 대상으로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 위원	- 그건 일단 그룹핑 먼저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관도에 대한 평가나 실현 가능성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하면, 어쨌거나 시나리오가 몇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조를 시나리오별로 재편성해야죠.
○○○ 위원	- 기능도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주거, 상업, 녹지 그러니깐 똑같이 주거, 상업, 녹지이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룹핑 이 그룹으로 AHP를 하고 자기들이 전체적인 큰 틀을 이렇게 잡았으니 안의 기능을 한번 해봐라 까지 가는 겁니다.
○○○ 위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매트릭스 4개만 보더라도 16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에서 조금 고려해야할게 빠른 시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려면 그 16개가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 모든 조합이 다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정도로 시나리오를 짜면 6개? 많이 나오면 6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6개를 다 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3개를 정한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 4개를 정한다 이런 룰은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거는 해줘야지만 이게 뭔가 체계화되고 나중에 정리가 될 것 같고. -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주시죠. - 그런데 저게 지금 예시지 방향을 정해주는 건 아니죠?
○○○ 위원	- AHP는 용도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주거, 상업, 녹지만 놓고 우선순위를 보자라는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한 번 더 생각하면 비율까지 보자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 제가 생각해도 비율은 어려울 것 같아요.
○○○ 위원	- 어려운데 얼마나 정하자라기보단 아까 말한 녹지, 주거, 상업 이렇게 용도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까지는. - 예를 들면 그래도 이게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거고, 사전에 자료들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 저는 각각 역할도 다르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워크숍이 잘 되는지 사실은 감시하는 역할들도 하면서 시민참여단들은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용도에 대한 선호도가 필요한 거고, 적어도 이 비율의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거나 이 정도라는 겁니다. - 그런 방향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연관 분야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근린상업시설 정도 있어야한다, 그런 상업시설은 있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려는지. 이런 정도만 되어도 나머지 퍼센트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딱 그거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이런 데는 사업시설은 전혀 없는 그냥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해야겠다. 근데 AHP를 하려면 조금씩은 다 나올건데요.
○○○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다 나오니까 그중에 우선순위를 3개 시나리오를 선택을 할 거예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그렇게 하면 16개가 다 나와요.
○○○ 위원	- 그러면 전부 다 이해되신 분도 있고 저처럼 이해를 잘못하기도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지금 얘기된 것 한번 다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 위원	- 비전 토론을 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어쨌거나 아까 공간구성이 나올 거잖아요. 공간구성이 나오는데 그 공간구성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 그래서 그 세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주거, 상업, 녹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공업지역도 고려하겠다 이러면 4개가 되는 것이고요. - 그럼 4개, 4개 해서 하면 매트릭스가 16개가 나오잖아요. 16개를 놓고서 AHP를 하겠다는 거예요. - 그런데 그 AHP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이 높냐 낮냐 비율로,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AHP를 해서 점수가 나오면 각각의 점수가 다 매트릭스로 나올 것이잖아요. - 그걸 갖고 점수가 높은 우선순위 3개를 정하겠다 4개를 정하겠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4개가 예정이 되는 거죠.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예정이 되는 거예요. 큰 방향만. -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주거시설이 높고 상업 시설은 낮고 녹지는 보통 정도 되고, 이렇게 시나리오 그림이 나오잖아요 - 그러면 거기까지만 놓고서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 4개가 선택이 됐으면, 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다른 보완성, 연계성을 따지는 거죠. - 저기에 나와 있던 3번, 4번, 5번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거는 추가 논의를 해서 붙이자라는 거죠. - 그러면 나중에 앞의 방향성과 보완이 연계가 되면 이렇게 흐름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쓰자라는 것이죠.
○○○ 위원	-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하는 AHP분석은 각 그룹별로 공간구성에 대한 미래상이 나오고, 그 미래상에 대해서 공간구성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AHP를 해야하네요. 그런데 그 공간 구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했는데, 주거, 상업, 문화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지잖아요.
○○○ 위원	- 그러니깐 그거를 복잡해지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정해달라는 것이, 주거, 상업, 공업, 문화 이렇게 할 건지, 그 4개 콘텐츠를 할 것인지 3개를 할 건지, 두 개만 할 건지 사전에 윤곽이 그려져야 한다는 거죠.
○○○ 위원	- 그런데 나는 그걸 갖다가 주거, 상업, 문화 이렇게 우리가 한정 지어서 미래상을 얘기해봐라, 공간구성을 얘기해달라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요?
○○○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참여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마음껏 다 써봐라.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우선순위를 해서 각 조에서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투표에 따라서 3개를 정해서 해라. - 3개를 정할지 4개로 정할지는 뭐 또 여기서 제안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이 정할 수도 있어요. - 참여자들이 시간이 충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 위원	- 예를 들면 공간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각 조별로 특색 있는 공간구성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AHP 분석을 할 수는 없는가요.

	- 거기에서 상위 순위를 골라내면 되니깐. 미리 공간 구성에 대한 주거, 상업 용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간구성이 각 그룹별로 주 용도 이렇게 용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AHP 분석을 해서 체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위원	-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너무 불확실하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조가 전체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죠. 그런데 저희는 조별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전체에서 또 해야 하잖아요. - 그러니까 4개 조에서 그 작업을 할 거고 그 4개 조에서 나온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각 조에서 3개씩을 선택을 했다면 전체 시나리오는 12개가 되잖아요.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갑자기 하나의 시나리오로 단일화 해달라 이러면 4개가 되는 거죠.
○○○ 위원	- 예를 들어서 4개의 조에서 공간구성이 나왔어요. 어떤 데는 문화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간구성을 가지고 AHP 분석을 했어요. 그럴 경우 거기서 어느 정도의 공간구성 별로 선호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공간구성 별로 선호도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체해서. - 예를 들면 10개의 공간구성이 나왔는데 그중에 높은 4개의 공간구성으로 위원회가 제안을 하고, 그 공간구성에 나는 이 공간구성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다시 해쳐볼 수는 있지 않을까. - 그러면 비슷한 공간구성을 선호하는 분들끼리 다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아까 주거, 상업, 녹지, 공업 안에서 안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사실 이건 원래 섞는 게 저희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을 뺄 건지 공업을 뺄 건지 이렇게 하는 건데. - 예를 들어서 주거와 녹지와 공공이 들어가는 이 구조에 대한 구상을 그리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각각에 그릴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계획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하고 나서 절반은 녹지나 공원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 아무튼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 이 넓은 땅이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그러면 아까 주거, 공공, 산업 이거를 섞는 것인데, 이거를 섞으면 선호도에 따라 '나는 녹지의 비중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완해야 할 게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부신시가지 전체가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주변에 있으니까 녹지의 비율을 높이는 선에서 이 계획이 짜여야 합니다라고 보완의견 쓰고 보완의견이 앞으로 가면 당연히 녹지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업용지는 좀 줄여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토지이용의 구상들을 큰 틀에서는 단일로 가는 법, 혼합으로 하는 법 이렇게 있는데, 혼합의 비율이 높을 것 같다는 판단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 혼합의 안들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공간구성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은 공공으로 들어가야 하니깐 공공의 배치가 많아져야 한다. 아파트는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는 좀 줄여야 하는데 이익이 나올 때는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 조건으로 나올 거고. - 보안 조건이 비중이 큰 것들은 앞으로 갈 것이고 비중이 낮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주거와 녹지와 공공과 상업이 조금은 디테일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거고. - 이 부분들은 여기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그럼 이것을 정하죠. 우리가 소위 용도, 기능을 제안해줄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풀 것인지 그것만 정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사실 그건 어렵다는 느낌이 상업용지 하나만 예를 들게요. - 지금 계획상에는 8만평이거든요. 뭐 계획이 엄매여도 안 되지만, 갖고 들어오는 게 랜드마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성향 조사를 하면 기본 정보가 부족한데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 아파트만 해도 쇼핑몰하고 같이 있을 때 아파트 가격하고, 쇼핑몰이 그냥 조그마한 가게에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것이 아주 복합적인 건데요. - 예를 들면, 상업 용지의 전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용지를 해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얼마 정도의 상업 용지를 허가해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상업 용지가 우선이냐 주거가 우선이냐라고 그러면 사실은 규모도 문제가 되거든요. - 그래서 묻는다고 하면 상업용지가 예를 들면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업용지 사이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예요. - 또한 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 이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한 나중에 이것이 다 섞이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요. - 예를 들면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계산하지 말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만약에 시민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종류를 쭉 나열해서 점검해보는 거예요. - 어떤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컨벤션으로 받을 것인지, 도서관으로 받을 것인지 두 가지 이상 선택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론 안 날 것 같은데요.
○○○ 위원	-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공간구성에 대해서도 좁혀가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세 번밖에 없고 첫날은 소개이고, 두 번째 날밖에 이걸 할 수 있는 날이 없는데.

	- 지금 말씀하신 알려놓고 하는 방법은 도저히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이슈가 되는 건 커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용지로 들어갈 건데 어떤 시설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전주시의 비전에 맞느냐고 봐서, 어떤 것을 포함한 중심시설까지라고 하면 이건 상업용지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나리오워크숍이 세 번이 있고, 우리가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날에 주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조금 가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도저히 오늘로 이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월 17일날이 1차 모임이죠. 우리 용역팀, 10월 17일에는 의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죠? 공유하는 자리죠? - 그래서 저는 한번 더 이 의제만 가지고 얘기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15, 16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15일 오전에는 어떻습니까. 17일에는 공론화 의제에 대한 내용이 필요 없다고 해서 24일까지만 되면 되니까. - 12일 월요일 오전도 됩니다. 12일 오전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 네. 좋습니다
위원장	- 그럼 다음주 월요일 1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